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5주일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바실리스코스 순교자
(제4조,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행 11,19~30 -- 254
- 복음경 : 요한 4,5~42 ---- 100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기타 성가, 성모송, 영성체성혈송은 부활절 의식서 참고)

만남으로 구원을 얻다

예수님께서 야곱이 사마리아 지방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파놓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결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생활을 낱낱이 지적하며 그녀의 죄로 물든 생활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새 영혼으로 구원되었고, 이를 토대로 높은 영적 문제까지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을 밝힌 그녀는 자신이 사는 동네부터 시작하여 선교 활동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밝혀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포티니'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속마음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보다는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전자기기의 시대에는 어디를 가나 광고가 넘쳐나고, 저마다 많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며, 외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가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고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지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일들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유행과 세상의 흐름이 요구하는 것들에 삶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내면'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우리 자신 안에 갇혀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하느님께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한 몸을 이룬 채로 머물러 있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을 새롭게 갱생시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갱생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훌륭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자신의 주변 사회에 평화와 사랑을 널리 전달하게 합니다.

“인간의 속마음”(1베드로 3,4)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있으며,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기반을 둔 ‘혼잣말’을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대화 상대의 말을 존중하면서 주의 깊게 듣게 하고 그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가르칩니다.

기도의 힘

아타나시아 봉사자

‘기도의 힘’이라는 말이 그저 형식적이고 불가능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은 잠시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고,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꺼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 지상의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천상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인들을 찾아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어떻게 기도만이 우리에게 위안을 안겨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무섭고 공포에 떨게 하는 실존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으며, 우리의 성난 영혼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또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같은 비극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오로지 기도만이 우리를 하느님의 주파수에 맞추게 할 힘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때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강력한 통화와 통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확고한 희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요한 클리막스 성인(6~7세기 이집트 성 카테리나 수도원의 수도자)이 말한 대로, 오직 기도만이 “악마가 자기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두려움에 떨면서 깨부수도록 만듭니다.”

믿음과 행동

예루살렘의 첫 주교였던 성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에 걸맞은 사랑의 행동으로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1,27)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2,14~17)

신앙 탐구

기도 매듭의 유래

꼼보스끼니(Κομποσκοίνι)라 불리는 '기도 매듭'은 4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320년 최초로 수도원을 설립했던 이집트의 성 파코미오스 수도자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 끈을 이용하였습니다. 기다란 끈에 매듭을 일정한 길이로 묶어 마디를 만들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넘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파코미오스 수도자의 매듭 끈을 풀어놓으며 번번이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성인을 찾아와 사탄의 방해로 어려움에 빠진 그에게 매듭을 십자가 형태로 묶으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사탄이 달라붙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매듭 끈은 아홉 번의 십자 형태로 매듭지어 한 마디가 되는 지금의 꼼보스끼니가 된 것입니다.

파코미오스 수도자는 이 꼼보스끼니를 모든 수도자가 소지하여 기도 도구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후, 꼼보스끼니는 수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 되었고 '예수 기도'와 더불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소 식

소티리오스 대주교 근황

오랫동안 병고를 겪고 계신 영적 아버지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세례를 축하합니다

레오니드 노보셀로브 유아가 지난 5월 14일(토), 로만 카프착 신부가 집전한 세례성사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결혼을 축하합니다

안드레이 조승현 군과 테오도라 전민정 양이 지난 5월 8일(주일) 거행된 결혼성사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신축 성당 첫 성찬예배 거행

신축 공사가 마무리된 새 성당에서 지난 5월 15일(주일),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의 집전으로 첫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축하 오찬이 있었습니다. 새 성당이 완공되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5월 11일(수)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와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임시 성당에서 새 성당으로 이전 작업을 했으며, 성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아름답게 완공된 신축 성당에서 크게 성장하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